朝鮮後期 妓女服飾이 一般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김 나 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김 용 서

目 次

Ⅰ. 緖 論
Ⅱ. 朝鮮後期 時代的 背景
1. 社會文化的 背景
2. 妓女와 一般婦女子의 生活
Ⅲ. 朝鮮後期 妓女와 一般婦女子의 服飾
1. 妓女의 服飾
2. 一般婦女子의 服飾
Ⅳ. 朝鮮後期 妓女服飾이 一般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
Ⅴ. 結 論
참고문헌
ABSTRACT

Ⅰ. 緖 論

朝鮮時代의 신분계층은 학자들에 따라 그 구분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兩班, 中人, 庶民, 賤民으로 구분된다.[1] 服飾 또한 上下, 尊卑, 貴賤의 等位를 가르기 위해서 신분에 의해 엄격히 구분되어, 庶民이나 賤民은 아무리 富가 있더라도 공인된 사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 있는 服飾에 대한 많은 禁制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2] 그러나 賤民階層에 속하면서도 服飾에 대한 奢侈가 허용된 階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妓女들이다. 朝鮮時代의 妓女들은 남자를 接待하게 되어 있어 당시 유교적인 윤리관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奢侈禁止條項에 규제받지 않는 예외규정이 허용되었다. 그리하여 妓女들은 班家婦女子에 버금가는 화려한 服飾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服飾美를 창출해 낼 수가 있었다.

朝鮮後期의 妓女 服飾은 저고리는 점차 短小化되고 치마는 풍성해진 上薄下厚의 服飾形態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服飾形態는 人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妓女들이 이를 선호하

1) 韓沽劤 · 李泰鎭,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朝鮮後期篇－』, 一志社, 1985, p.203.
2) 『太宗實錄』 9年 3月 壬戌.
雛娼妓賤類 皆着紗羅綾段 僭擬宮掖 奢侈靡麗之風 日加月增 近年尤甚 …… 尊卑之無等 禁奢僭之習 崇節儉之風 不允
『成宗實錄』 3年 正月 己未.
庶人之服 宜有差等 …… 庶人婦女鞍上坐子 並用綵段 爭務華美 實爲奢僭並禁
『成宗實錄』 3年 1月 己未.
庶人男婦用貂皮靑鼠皮爲衣耳掩者並禁 등

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精神的인 內面의 修養을 최고 가치로 여겨왔던 班家婦女子나 노동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庶民婦女子들까지도 이러한 服飾形態가 보인다는 것은 매우 注目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朝鮮後期 一般婦女子 服飾의 變化를 대체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3] 그렇지만 服飾은 인간의 內面世界를 반영하며, 服飾의 形態나 色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변화하고 발달하기도 하였다.[4] 이로 미루어 볼때 朝鮮後期 一般婦女子의 服飾 變化를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考에서는 朝鮮後期 一般婦女子의 服飾變化를 一般婦女子의 內面心理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妓女의 服飾이 一般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朝鮮後期의 古文獻, 판소리계 소설, 민요, 申潤福, 金弘道 등의 풍속화, 유물 및 기타 服飾과 관련된 문헌을 연구자료로 삼았다.

Ⅱ. 朝鮮後期 時代的 背景

1. 社會文化的 背景

朝鮮後期에 들어와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兩亂으로 인해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空名帖을 賣買하거나 軍功從良, 納粟從良, 官籍賣買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兩班과 中人, 庶民, 賤民의 네 계층 으로 구성된 身分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다.[5]

後期에 대두된 實學은 민족적 자아의식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판대상으로 삼았으며,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당시의 정치, 경제, 천문, 지리, 문학 등 여러 방면의 연구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며, 英·正祖代에 이르러서는 경제, 사회, 사상, 문화 면에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6]

이 시기의 문학작품이나 회화에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에로틱한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兩班과 기존 관념에의 도전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의 표현이며, 특히 유교관념의 약화와 함께 등장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7] 庶民歌辭에는 현실적인 불행이나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이 많으며, 당시의 勞動謠에는 庶民婦女子들의 고된 노동이 잘 표현되어 있다. 풍속화에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능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申潤福은 閨良과 妓女들의 사랑을 주로 다루었다. 그의 풍속화는 朝鮮時代 士大夫의 윤리관에 비추어 보면 비도덕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申潤福 자신의 대담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작품활동이

---

3) 김영숙, 「18세기 여자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1985, 12.
남궁윤선, 「朝鮮後期 風俗畫의 畫風과 그에 나타난 服飾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林栽永, 「朝鮮後期 服飾發達의 要因 硏究」, 梨花女大博士學位論文, 1990.
정혜경,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1992, 5. 등

4) Marilyne J. Horn,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Second edition, (Boston : Houghton Miffin Co., 1968), pp.3~6.
복식은 복합적 동기의 산물이고 그 동기들은 모두 상호의존적이며 육체적·심리적·문화적 여건의 소산 이라고 밝하고 있다. 또한 복식해석에 필요한 학문분야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예술학 등을 열거하여 이들의 복식학적 의의를 설명하고, 복식학과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圖示하고 있다.

5) 韓沽勤·李成茂, 앞의 책, p.202.

6)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83, pp.277~278.

7) 林栽永, 앞의 책, p.88.

가능했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시사해 준다.[8]

2. 妓女와 一般婦女子의 生活

1) 妓女의 生活

朝鮮時代의 妓女는 원칙적으로 官妓였으며 官妓들은 대개 15歲부터 妓女의 所任에 종사하여 50歲에 所任을 마쳤다.[9] 또한 妓女의 신분은 官衙에 隷屬된 세습노예였기 때문에 한번 妓女가 되면 妓女의 職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妓女의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代卑定屬과 贖良이라는 것이 있었다. 代卑定屬이란 妓女가 늙어서 혹은 병으로 退할 때 隋母法에 따라 그 딸이나 조카를 官衙에 隷屬시키고 後孫이 없으면 농지와 집을 소속 官衙에 반납했던 제도였으며, 贖良이란 妓女의 신분을 벗어나 양민이 되는 것인데 이는 양반의 소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았다.[10]

이와같이 조선사회에서 妓女는 여덟가지 천한 것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妓女는 歌舞에 능하고, 識見이 높아 남성중심의 양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2) 一般婦女子의 生活

주자학 사상에 묶여 있었던 朝鮮時代 一般婦女子의 사회적 지위는 대체로 남자에게 종속되어 낮은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유교윤리가 全社會的으로 확산되고 확고해짐에 따라 男尊女卑 思想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一般婦女子의 지위는 점차 더 낮아졌다. 게다가 庶民婦女子는 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했다.[11]

그러나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치는 동안 以前의 전통적인 女性觀이 다소 바뀌어 後期에는 烈女보다는 賢母良妻가 더 바람직한 女性像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면에서도 나타났다. 즉 前期에는 貞節이 주요 교육내용이었던 것이 後期에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婦女子들이 조심하고 지켜야 될 禮義凡節이 교육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었다.[12] 또한 현실에 바탕을 두었던 實學의 영향으로 班家婦女子도 學文活動에 참여하게 되었다.[13]

이러한 後期의 實學, 商工業의 發達, 天主敎 傳來 등 여러 사회적 변화는 유교적 생활윤리나 사회윤리를 약화시켰으며,[14] 이는 一般婦女子의 服飾生活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Ⅲ. 朝鮮後期 妓女와 一般婦女子의 服飾

朝鮮後期 妓女와 一般婦女子의 服飾은 주로 풍속화와 고문헌, 문학작품, 유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妓女의 服飾

李寅文(1745~1821)의 〈妓女圖〉[그림 1]에서 보이는 妓女의 얹은 머리는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는데, 이는 朝鮮後期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加笠의 奢侈를 禁하고자 英祖 25年 10月(1750年)에 髮制改革에 관한 論議가 시작되었으나,[15] 妓女의 加髢는 그대로 두었다.[16] 그러나 加

8) 안휘준, 『韓國繪畵史』, 一志社, 1983, pp.280~281.
9) 金用淑, 『韓國女俗史』, 民音社, 1990, p.235.
10) 李石來, 『李朝의 女人像』, 乙酉文化社, 1984, p.126.
11) 성기영, 「속담과 민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4.
12) 韓國女性史 編纂委員會, 앞의 책, p.307,
13) 天和淑, 「朝鮮時代 女性의 社會的 地位에 대한 歷史的 考察」, 『경원대 논문집』, 제 10집, 1992. p.248.
14) 林栽永, 「朝鮮後期 服飾發達의 要因 硏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p.88.
15) 『英祖實錄』, 25年 10月 戊辰.
上 論婦人髢制 吏曹參判李天輔曰 髢本非古禮也 若魯曰 髢取他人之髮 以髢 首尤爲非禮禁之便禮曹參判洪 鳳漢曰

[그림 1] 李寅文〈妓女圖〉

[그림 2] 申潤福〈年少踏靑〉

笠의 弊端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正祖 12年(1788年)에는 英祖의 加髢禁止令에서 제외되었던 妓女들에게도 加髢禁止令이 내려졌다.[17] 이에 따라 妓女들은 머리를 위로 틀어올려 加尼麽를 쓰게 되었다. 加尼麽는 후에 花冠으로 대체되었으며, 宮中內宴에 출현하던 妓女들은 花冠에 오색구슬로 꽃모양을 두르기도 하고, 나비모양을 만들어 달기도 하였다.[18] 長衣와 쓰개치마는 외출용 쓰개로 內外法에 따라 婦女子가 閉面用으로 착용했던 쓰개이다. 그러나 妓女는 이러한 內外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시 낯을 가리지 않아도 되었으나, 申潤福의 〈年少踏靑〉[그림 2]에는 쓰개를 착용한 妓女와 그렇지 않은 妓女가 함께 보인다. 이는 妓女가 쓰개를 착용했던 이유가 班家婦女子의 閉面用의 목적과는 달리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정케 해준다.

朝鮮中期부터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던 妓女의 저고리는 後期에 접어들면 극도로 짧아져서 도련밑으로 허리말기와 겨드랑이가 보일 정도가 되었다. 李寅文(1745-1821)의 〈妓女圖〉[그림 1]에서 저고리는 金喜謙의 〈石泉閒遊〉[그림 3]의 저고리보다 짧아졌다. 作者未詳의 〈美人圖〉[그림 4]에서는 저고리의 길이가 더욱 짧아져서 그 사이로 젖가슴이 보이고, 저고리의 품과 소매통도 더욱 좁아졌다. 여기서 저고리 밑으로 보이는 다홍색 안고름은 단조로움에 엑센트를 주는 美的表現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妓女들의 삼회장 저고리 착용은 금지되었다고 하였으나,[19] 風俗畫에서 보이는 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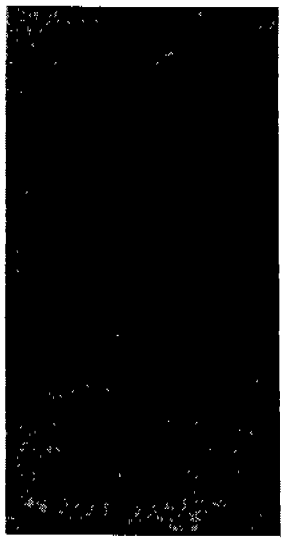
髢之貴 多至百金 人皆破産 苦禁之則亦 去奢之一端也 上曰 去髢而無可代者所以難禁 仍問史官李宜 哲 對曰 今之髢 卽禮圖編次之遺制 不可謂非禮 而其取他人之髮者 儀禮鄭玄註 謂取刑人賤者之髮爲之 盖古 人身體髮膚 不取毁傷 故須取刑人髮 自王后皆得用之 今又何嫌乎 但殿欲禁奢而去之 則奢之本 非由於髢 雖 代以他物 又將就而爲奢 何益之有 上曰 是也諸臣不能禁家人之侈髢 而但子禁之 豈不難哉 上 又曰 士夫婚嫁 亦各從其類 今若彼此二黨 兩相結婚則不亦善乎 判府事金在魯 江華留守元景夏 對曰 上意如此 豈不惑動 而從之乎 上曰 不然 人各私其黨 雖項羽爲君而力制之 莫之能禦也 承旨尹光毅曰 不雖禁也 上曰 渠則自以 爲行堯舜之道 孰能禁之

16) 『英祖實錄』, 33年 12月 甲戌.
命禁中外婦女髢髻 代以後髻……常賤人則仍用髢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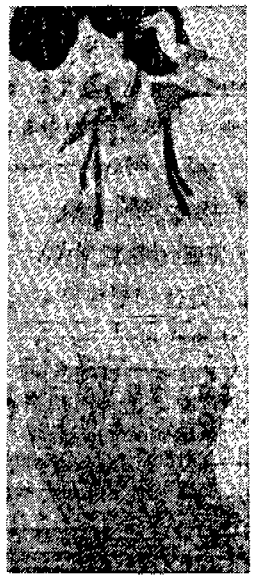
17) 『正祖實錄』, 卷二十六 十二年 十月 辛卯.
常賤女人 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 幷許令以本髮加首 以貼髢加髢之制 各別禁斷 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 各營邑女妓 則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麽 以示區別威之意 內醫女 仍用冒緞 餘則用黑三升布

18) 柳喜卿, 『韓國服飾史 硏究』, 梨大出版部, 1989, p.425.

19)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92, p.473.



[그림 3] 金喜謙〈石泉閒遊〉



[그림 4] 作者未詳〈美人圖〉

女는 대부분 삼회장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妓女에게 신분을 초월한 服飾奢侈가 허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朝鮮後期 妓女의 치마는 길이가 땅에 끌릴 정도로 길었으며, 폭도 넓었다. 金弘道의 〈美人化粧〉[그림 5]에서 妓女의 치마는 풍성한 볼륨감을 준다. 그리고 李寅文의 〈妓女圖〉[그림 1]에서 妓女의 치마는 허리에 잔주름이 촘촘히 잡혀 선의 율동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臀部는 볼록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항아리형의 실루엣을 보이고 있다.

『春香傳』에서

"홍상자락을 에후루쳐 세류흉당의 딱 붙이고…… 초마 자락을 훨신 추워다 턱 밋트 딱 붓치고"[20]

라는 표현은 申潤福의 〈夜禁冒行〉[그림 6]에서처럼 妓女들이 치마자락을 휘어잡아 거두어 앞가슴으로 붙잡은 거들치마를 착용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妓女는 치마 속에 속옷을 여러겹 껴입어 치마의 실루엣을 풍만하게 하였으며, 많은 경우 치마 속에 10여가지의 속옷을 입기도 했다. 속옷의 종류에는 속치마, 대슘치마, 속속곳, 바지, 다리속곳, 너른 바지 등이 있는데,[21] 金弘道의 〈美人化粧〉[그림 5]에서 보이는 妓女의 바지는 폭이 넓어 치마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 바지부리는 더욱 좁아보여 여유있는 멋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거들치마의 착용에 의해 속바지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속옷도 裝飾性을 띠게 되었다. 申潤福의 〈夜禁冒行〉[그림 6]에서 치마 아래 보이는 속바지는 고운 누비로 장식되어 있다.

이처럼 妓女는 그들이 상대하는 신분이 주로 中·上流階層의 남성이었기에, 그들의 권력을 背景으로 신분을 초월한 화려한 服飾을 착용할 수 있었다. 『經國大典』에는 妓女에게 金銀의 首飾과 綾羅의 의복을 허용하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으며,[22]

20) 李家源 譯, 「春香傳」, 太學社, 1995, pp.129~130.

21)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95, pp.223~236.

22) 「經國大典」 卷五 形典 禁制.
京妓雜飾金銀珠玉 …… 勿禁

[그림 5] 金弘道〈美人化粧〉

[그림 6] 申潤福〈夜禁冒行〉

『漢陽歌』에는 朝鮮後期 妓女의 화려한 服飾이 묘사되어 있다.[23] 이러한 妓女數가 朝鮮全期를 통해 약 20,000명[24]에 달하였기 때문에 妓女의 생활은 당시의 一般婦女子의 生活文化 全般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一般婦女子의 服飾

『湛軒書』에서 "저고리의 품은 좁아지고, 소매는 길어서 허리까지 닿으며, 치마는 땅에 닿고 다리는 매우 크다"[25]는 기록은 朝鮮後期 班家婦女子의 服飾이 前期의 服飾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英祖代의 加髢禁止令[26] 및 正祖代의 加髢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27] 班家婦女子의 加髢奢侈는 계속되었다. 正祖代에 髢髻의 폐단을 是正하려는 목적으로 加髢대신 권장했던 花冠은[28] 원래 宮

23) 『漢陽歌』, 民昌文化社, 1994, p.13.
얼음같은 누른 氈帽 紫芝 甲紗 끈을 달고, 구름같은 허튼머리 반달같은 쌍얼레로 솰솰 빗겨 고이 빗 겨 片月좋게 땋아 얹고, 毛緞 三升 가리마를 앞을 덮어 숙여 쓰고, 珊瑚簪 밀화비녀 은비녀 금봉차 를 이리 꽂고 저리 꽂고, 唐假花 常假花를 눈을 가려 자주 꽂고, 桃李 佛手 모초단을 웃저고리 지어 입고, 兩色緞 속저고리 갖은 佩物 꿰어차고 鑑甲紗 銀條紗며, 花甲紗 긴 치마를 허리 졸라 둥여입고, 白紡水紬 속속곳과 繡甲紗 단속곳과 壯元紬 넓은 바지 蒙古三升 겹버선과 安東 商慶 繡雲鞋를 맵 시있게 신어두고 百萬 嬌態 다 피우고 모양좋게 들어온다.

24)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5輯, 亞細亞女性研究, 1966, p.81.

25) 洪大容, 『湛軒書』 乾淨 筆談 上 乙酉 2月 15日.
婦人衣狹 袖長及腰 承以袋及地 髢髻甚大

26) 『英祖實錄』 33年 11月 己丑.
今之可禁者 婦女髢髻也 ……
『英祖實錄』 33年 12月 甲戌.
命禁中外婦女髢鬅 代以後髻……常賤人則仍用髢髻 命婦士族禮服 亦禁金珠及龍鳳釵……
『英祖實錄』 34年 1月 庚子.
命禁髢髻 許以宮樣 族頭里 凡諸他樣 并嚴禁

27) 『正祖實錄』 3年 9月 乙丑.
禁髢髮 乃所以祛侈風 而若出花冠 則飾以珠玉 其費殆有過焉 …… 民生困悴專由於侈風之漸盛

28) 『正祖實錄』 3年 4月 庚申.
則髢髻 等事 不則禁而自禁 且旣禁髢髻之後 當用花冠之制 而飾以珠翠其費殆過於髢髻 尙爾趑趄者此也

中內宴에서 妓女, 女伶, 舞妓들이 쓰던 것으로[29]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르지만, 오색구슬로 찬란하게 장식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班家婦女子들도 그들의 花冠에 珠玉金具로 온갖 장식을 하였으며, 이러한 花冠에 대한 奢侈는 바로 妓女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內外法이 심했던 朝鮮時代 班家婦女子들은 외출할 경우에 너울이나 쓰개치마를 썼으나,[30] 『京都雜誌』에 "여염집 婦女子들은 녹색 옷옷을 입으며 길을 나갈 때는 따로 다른 옷으로 머리를 가린다."[31]라는 기록으로 보아, 班家婦女子가 庶民婦女子나 妓女들이 썼던 長衣까지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班家婦女子들에 의한 長衣의 착용 역시 妓女服飾이 班家婦女子의 복식에 준 영향의 하나로 생각된다.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班家婦女子의 저고리는 短小化되고 窄袖化되어 많은 실학자들의 비판대상이 되었다.[32] 당시 저고리의 현존 유물로 梁憲洙將軍 婦人의 저고리[33]와 宋씨의 저고리[34]가 있는데, 각 부위의 치수를 살펴보면 옷길이, 품, 고대, 진동, 소매통, 수구, 깃, 옆선, 섶 등이 점점 소형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800年代 후반[35·36]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치마는 폭이 더욱 풍성해졌고, 길이가 더욱 길어졌는데,

李德懋(1741－1793)이 『靑莊館全書』에

> "지금 세상 부녀자들의 옷을 보면,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 …… 대저 복장에 있어서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娼妓들의 아양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 그 요사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妻妾에게 권하여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그것을 본받게 한다. 아, 詩禮가 닦이지 않아 규중 부인이 기 생의 복장을 하도다! 모든 부인들은 그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37]

라는 기록은 班家婦女子의 服飾이 妓女服飾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班家婦女子가 妓女의 服飾形態를 따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英祖 初年頃에 賤娼이 입었던 廣袴를 지금은 上下가 다 입는다."[38]는 기록은 班家婦女子가 원래 妓女가 착용했던 廣袴를 착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庶民婦女子는 혼례당일을 제외하고는 妓女나 班家婦女子처럼 화려한 服飾奢侈를 할 수 없었다.[39]

---

29) 柳喜卿, 앞의 책, p.425.

30) 李能和, 앞의 책, p.349.

31) 柳得恭, 『京都雜誌』卷一 風俗 巾服.
閭巷婦女綠袘衣 在街上男用一衣蒙首

32) 『增補文獻備考』, 卷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我國婦人之服 衣裳不連 而衣短不掩腰 元世祖 變易中國之俗 男爲袴褶窄袖 女窄袖短衣下服裙裳意者 此 時從元制而後遂因循 至今不變也

33) 이 저고리는 梁憲洙 장군(1816~1888, 純祖 16~高宗 25)의 부인이 만년에 입던 누비저고리로 1870년대 이후의 것으로 보아진다.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8, p.60.)

34) 宋氏는 乙丑年(1925)에 回甲을 지냈으며, 이 저고리는 宋氏가 14세 나던 해인 1878~1879(高宗 15年~16年) 때의 저고리이다. (李京子, 앞의 책, pp.61~62.)

35) 閔泳植씨 소장인 삼회장 저고리로 저고리의 연대는 1895년 쯤으로 짐작되며 뒷품의 치수로 보아 중년기 의 것이 아닌가 한다. (李京子, 앞의 책, pp.63~64.)

36) 1900년대의 저고리로서 柳在冕씨 所藏인 祖母 金氏의 저고리이다. (李京子, 앞의 책, pp.65~66.)

37)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飾.
時世之服 上衣太短窄 下裳太長博服妖也 削衿之衫 撑幅之袖 服妖也 …… 大抵妝飾衣裝 號爲時樣 皆出娼妓狐 世俗男子 沉溺不悟 勸其妻妾 使之倣效 轉相傳習 嗚呼詩禮不修而閨人妓裝 凡百婦人 其宜亟改

38) 李裕元, 『林下筆記』 卷十七 春明逸史.

39) 柳喜卿, 앞의 책, p.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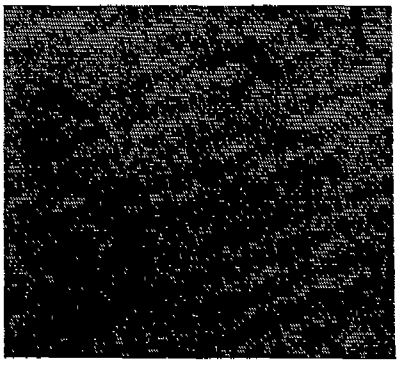
庶民婦女子의 머리모양은 班家婦女子나 妓女와 같이 틀어올린 머리였지만 제머리 또는 작은 다리를 드려 빗었다.[40] 또한 가난한 집 婦女子들은 시집을 간 지 오래되어도 다리머리를 갖추지 못하고 맨머리로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41]

李 瀷(1681－1763)이 『星湖僿說』에서

"지금 婦女子의 의복은 짧은 적삼에 소매가 좁은데 어느때부터 생긴지는 알지 못하며, 貴賤이 통용 하니 해괴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습속에 젖어 예사로 알고 있다. 또 여름에 입는 홑적삼은 아래를 줄이고 위로 걷어올려 치마말기를 가리지 못하니 더욱 해괴한 일이다. 이는 服妖이니 마땅히 禁하여야 할 것이다."[42]

라고 했듯이 庶民婦女子의 저고리도 短小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庶民婦女子에게는 겹치마 착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루치라고 하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치마를 착용했다.[43] 그러나 後期으로 갈수록 서민들의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치마의 길이도 길어지고 풍성해졌다. 金弘道의 〈우물가〉[그림 7]에서 보이는 庶民婦女子의 저고리는 길이 변화에 따라 각 부위의 치수도 변화했던 妓女의 저고리와는 달리 저고리의 다른 부위의 변화는 없고 단지 길이만 짧아졌다. 치마는 걷어 입어 치마 아래로 속바지가 보인다. 이러한 착장법은 妓女의 거들치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걷어 올린 치마아래로 보이는 바지부리에 다른 천을 덧댐으로써 드러나는 바지부위를 장식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妓女의 화려한 속옷사치를 모방하려 했던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金弘道의

[그림 7] 金弘道〈우물가〉



[그림 8] 金弘道〈行旅風俗 8曲幷 중〉

〈行旅風俗〉[그림 8]에서 일을 하고 있는 庶民婦女子를 보면, 金弘道의 〈우물가〉[그림 7]의 저고리보다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도 풍성해졌다. 이처럼 庶民婦女子들이 일하기에 불편해 보이는 形態의 服飾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보다 妓女服飾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

40) 石宙善, 앞의 책, p.66.

4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婦儀一 服飾.

42) 李 瀷, 『星湖僿說』卷十六 人事門.
今之婦女 窄袖短衫 不知何自 而貴賤通用 殊可駭異 人習見爲常 又其署月單衫 則縮不縫捲以向上 不得掩 裳際 則尤怪悖矣 此服妖也 宜禁絕之

43) 石宙善, 앞의 책, p.473.

Ⅳ. 朝鮮後期 妓女服飾이 一般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

朝鮮初期의 兩班階層은 服飾을 통해 자신들의 位相을 庶民階層이나 賤民階層과 구별하고자 했으며, 庶民階層이나 賤民階層은 兩班階層의 服飾을 추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朝鮮 初·中期에 걸쳐 자주 거론되었던 服飾禁制令은 身分의 標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禁論이 자주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시행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는 법의 규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람들의 內面心理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兩班階層이나 庶民階層에서 賤民階層인 妓女의 服飾을 모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儒敎觀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었고, 검소한 服飾着裝이 生活化되었던 班家婦女子는 妓女를 八賤의 하나로 賤視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妓女의 자유로운 服飾奢侈를 부러워했을 것이며, 庶民婦女子는 妓女가 자신들이 혼례 때나 누릴 수 있는 服飾奢侈를 遊食하면서도 누릴수 있다는 점을 선망했을 것이다. 그러한 내면욕구가 朝鮮後期에 와서는 班家婦女子와 庶民婦女子의 妓女服飾의 모방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함영희는 한복을 대중적으로 입었던 1920-1930년경까지만 해도 妓生이 한 번 입고 나오면 그것이 쭉 유행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44] 이는 妓女의 服飾이 一般婦女子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하여 朝鮮後期 一般婦女子의 服飾은 저고리는 점점 短小化, 窄袖化 되었고, 치마는 풍성해졌다. 班家婦女子는 치마가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妓女들이 착용한 廣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庶民婦女子는 치마를 거두어 입었을 때 드러나는 바지부리에 다른 천을 덧대어 妓女의 속옷사치를 모방하려고 하였다. 宮中遺物에서도 짧은 저고리[45]와 폭넓은 치마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朝鮮後期 妓女의 服飾은 班家婦女子의 服飾變化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一般婦女子가 이러한 妓女의 服飾形態를 따랐다고 볼 수는 없다. 金弘道의 〈행상〉[그림 9]에서 庶民婦女子는 매우 긴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서민부녀자의 고된 생업이 妓女의 服飾形態을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여유마저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9] 金弘道〈행상〉

Ⅴ. 結 論

지금까지 본 考에서는 朝鮮後期 一般婦女子 服飾의 變化 樣象을 婦女子의 內面心理에 초점을 맞추어, 妓女의 服飾이 一般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考의 결론은 본문

44) 金榮子, 「韓國의 服飾美」, 民音社, 1992, p.245.

45) 德溫公主 누비 삼회장 저고리(1837년 길이 16cm, 화장 65cm, 품 38cm)
이 누비 삼회장 저고리는 朝鮮時代 二十三代 純祖의 셋째딸 德溫公主(1822~1844)가 十六歲(1837) 되던 해 南寧尉 尹宜善에게 下嫁할 때 갖고 간 옷이다. (石宙善, 「衣」, 高麗書籍株式會社, 1996, p.167.)

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朝鮮後期에는 身分制의 秩序가 크게 무너졌으며, 開放과 實用이라는 實學思想과 天主敎 傳來에 의해 開放的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당시의 美意識을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었던 妓女의 服飾을 煽情的이고, 個性的이며, 다채롭게 변화시켰다. 즉 加髢奢侈가 극에 달하였고, 저고리는 緊迫하였으며, 치마는 상대적으로 부풀리어 대비되는 美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허리말기로는 간접적인 煽情性을 나타냈으며, 거들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속바지로 아름다움을 더했다.

따라서 班家婦女子는 妓女가 다른 어떤 階層보다도 자유로운 服飾奢侈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庶民婦女子는 妓女가 賤民이면서도 자신들이 혼례 때나 누릴 수 있는 服飾奢侈를 遊食하면서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妓女를 선망하였다. 이러한 心理가 朝鮮後期에 와서는 班家婦女子나 庶民婦女子의 服飾變化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班家婦女子는 화려한 加髢를 하였으며, 加髢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착용이 권장되었던 花冠은 妓女들의 화려한 花冠에 영향을 받아 오색구슬로 장식되었다. 또한 너울이나 쓰개치마와 함께 妓女나 庶民婦女子가 착용한 長衣도 착용하였다. 저고리는 점점 短小化, 窄袖化 되었고, 치마는 풍성해졌으며, 치마가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妓女들이 착용한 廣袴를 입기도 하였다. 庶民婦女子는 혼례 당일만은 화려한 加髢를 하였다. 저고리는 점점 短小化 되었으며, 치마폭은 넓어졌고, 치마를 거두어 입었을 때 드러나는 바지부리에 다른 천을 덧대어 妓女의 속옷사치를 모방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朝鮮後期에 妓女服飾은 一般婦女子의 服飾變化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최근들어 인접학문과의 학제적(interdisplinary)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복식사 역시 형태론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야를 넓혀 여러 인접학문의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고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본 考는 朝鮮後期 一般婦女子의 服飾變化를 시대적 背景만이 아닌 내면심리에 촛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服飾形態의 變化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古文獻〉

- 太宗實錄
- 成宗實錄
- 英祖實錄
- 正祖實錄
- 京都雜志
- 湛軒書
- 星湖僿說
- 增補文獻備考
- 靑莊館全書
- 林下筆記

〈單行本〉

- 강혜원, 『의상 사회 심리학』, 교문사, 1984.
- 김용서 · 안명숙, 『한국복식사』, 교문사, 1996.
- 金用淑, 『韓國女俗史』, 民音社, 1990.
- 金鍾權 譯, 『內訓 · 戒女書』, 明文堂, 1986.
- 김한식, 『實學의 政治思想』, 一志社, 1979.
- 석주선, 『韓國服飾史』, 보진재, 1992.
- 孫敬子 · 金英淑, 『韓國服飾資料選集 朝鮮篇 Ⅰ』, 敎文社, 1982.
- _____ · _____, 『韓國服飾資料選集 朝鮮篇 Ⅱ』, 敎文社, 1982.
- _____ · _____, 『韓國服飾資料選集 朝鮮篇 Ⅲ』, 敎文社, 1982.
- 안휘준,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3.
-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83.
- 李能和, 『朝鮮女俗考』, 東文選, 1988.

- 이석래, 『李朝의 女人像』, 乙酉文化社, 1984.
- 이태호, 『風俗畫 (들)』, 빛깔있는 책들 177, 대원사, 1996.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89.
- 曺圭和, 『服飾美學』, 修學社, 1997.
- 조효순,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95.
- 李家源 譯, 『春香傳』, 태학사, 1995.
- 板倉壽郎, 『服飾美學』, 耕春社, 1993.
- 韓沽劤 · 李泰鎭,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朝鮮後期篇－』, 一志社, 1985.
- 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韓國女性史 Ⅰ』, 梨大出版部, 1972.
- 『韓國의 美 19, 風俗畫』, 중앙일보사, 1994.
- 『韓國의 美 20, 人物畫』, 중앙일보사, 1994.
- 『韓國의 美, 21, 檀園 金弘道』, 중앙일보사, 1994.
- Marilyne J. Horn,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Second edition, (Boston : Houghton Miffin Co., 1968).

〈論文〉

-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5輯』, 1966. pp.75~115.
- 김영숙, 「18세기 여자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1985, 12.
- 金用瑞, 「文獻上에 나타난 우리나라 服飾의 考察과 近來 짧은 저고리에 對한 研究」, 淑明 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0.
- 金用瑞, 「우리나라 服飾의 歷史的 考察」, 『목포교대 논문집』, 제 7집, 1980.
- 金智勇, 「內訓에 비춰진 李朝女人들의 生活相」, 『淑明女大 亞細亞女性研究 第7輯』, 1968.
- 남궁윤선, 「朝鮮後期 風俗畫의 畫風과 그에 나타난 服飾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梁淑鄕, 「朝鮮後期 一般 服飾에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 林栽永, 「朝鮮後期 服飾發達의 要因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 정혜경,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1992, 5.
- 趙孝順, 「朝鮮朝 後期 女性服飾과 改良論議」, 『服飾 第4號』, 1981.
- 千和淑, 「朝鮮時代 女性의 社會的 地位에 대한 歷史的 考察」, 『경원대 논문집 제10집』, 1992.

ABSTRACT

The Effects of Kisaeng's Clothes on General Women's Fashion in the Late Choson Dynasty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he clothes worn by kisaeng; courtesans trained in singing and dancing, on changes in female psychology as reflected in general women's fashions during the later years of the Choson dynasty. During this period, the social order had broken down considerably, due in part to the introduction of Roman Catholicism, and in part to the actions of Sil-hak, who emphasized openness and practicality in the organization of social affairs. This freer social environment disrupted the established social hierarchies.

The kisaeng were among the first to respond to the new social mores by adopting more colorful, sensual, and individualized fashions. Their social position allowed them to reflect the new aesthetics of the time right away. Those aesthetics seemed to lay great emphasis on the artistic effects of contrast. The kisaeng would adorn their heads with large Kache (an elaborate wig or hairdo typically reserved for use by women in full formal dress). In contrast

to this conspicuous hairstyle, they typically wore very tight-fitting Jogori (short-cropped Korean traditional jackets for women) around their upper torsos. The long skirts emerging from beneath these short jackets would typically flare out dramatically, with the aid of petticoats. However, these skirts would be bound at the waist with a sash, increasing the sexual suggestiveness of the clothing by drawing attention to the hips, and by exposing the bottom frills of the petticoats, or the wide pantaloons and other undergarments the kisaeng wore to add volume to their skirts.

The relative freedom enjoyed by the kisaeng to experiment with new fashions was not widely shared by most women. This generated envy from women of the noble classes, who were more bound by convention, and restrained from adopting such a mode of dress. It also generated envy from women of the humble classes, who saw the kisaeng as working little for their wealth, and yet dressing every day in finery that the average woman would only ever be able to afford on her wedding day. This envy directed at the relative freedom/wealth of the kisaeng by women who faced greater socioeconomic constraints was given cultural expression through the adoption of elements of the kisaeng's fashions in the fashions of both noblewomen and humble women in old Korea.

The luxurious Kache sported by the kisaeng had in fact been borrowed from the habitual attire of upper-class women. So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 kisaeng, they began to abandon these elaborate hairstyles in favor of traditional ceremonial hoods (Neo-ul-a thin black women's hood) and coronets (Suegaechima). This supposed reaction to the abuse of the Kache by the kisaeng still remained influenced by the kisaeng, however, as these headdresses became adorned with many more jewels and decorations, in imitation of the kisaeng's adaptations of the coronet. At the same time, noblewomen began sporting the Jangwue ; a headdress previously worn only by kisaeng and lower class women, and lower class women were then permitted to wear the Kache at weddings. All women began to wear shorter, tighter Jogori jackets, and to add volume to their skirts. They also attached frills to their undergarments in imitation of the kisaeng's exposed petticoats and pantaloons. The impact of kisaeng fashions was thus deep and widespread, and can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women's longing for freedom from socioeconomic constraints in the late Choson dynasty.

This study adop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historical changes in women's fashions. Such interdisciplinary work can greatly enrich the study of fashion, often narrowly focused on clothing morphology and broad generalizations about society. For this reason, specific dynamics of feminine psychology in the late Choson dynasty were elaborated in this study,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fashion underpinned by them. If more such detailed analyses are undertaken, a whole new understanding of changes in fashion can be generated, and perhaps a transformation of the field of fashion history can be ultimately achieved.